

전북 고용지표 개선... 고용률 ↑ · 실업률 ↓

취업자 증가 속 산업별 편차는 지속...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노동시장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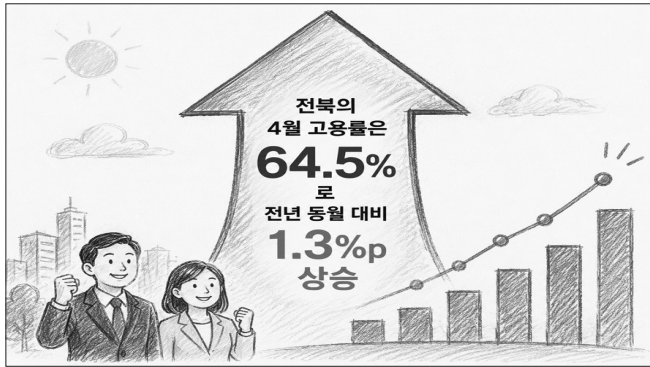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 2026년 4월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인 가운데,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하향,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4월 고용률은 64.5%로 전년 동월 대비 1.3%p 상승했다. 취업자는 99만 9천 명으로 2만 2천 명 증가했으며,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9.1%로 1.0%p 상승했다. 이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고용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했고, 실업자는 2만 5천 명으로 1천 명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직 활동 대비 취업 전환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경제활동인구는 10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1천 명 증가했으며, 구직 활동 대비 취업 전환이 1.3%p 상승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52만 4천 명으로 1만 9천 명 감소해 노동시장 참여 확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육아 인구는 감소한 반면 가



전북의 4월 고용률은 64.5%로 전년 동월 대비 1.3%p 상승했다.

사 인구는 17만 1천 명으로 증가했고, 통학 인구는 11만 8천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인구 구조와 생활 패턴 변화가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자 동향을 산업별로 보면 분야별 차이가 뚜렷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5만 명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확대를 보였고, 건설업도 7천 명 증가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역시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는 2만 명 감소했고, 농림어업은 1만 2천

명 감소, 제조업도 4천 명 줄어드는 등 전통 산업군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 같은 산업별 흐름은 서비스 중심 고용 확대와 농림·제조업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림어업 감소는 고령화와 생산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조립 단순직에서 2만 명 증가했고, 관리자·전문가 직군이 1만 3천 명, 사무종사자가 1만 2천 명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만 명 감소했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1만 4천 명 줄어드는 등 직종 간 양극화도 나타났다. 이는 기술 기반 및 사무직 수요 확대와 대면 서비스업의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성별 고용 지표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구조적 차이는 유지됐다. 남성 취업자는 54만 9천 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45만 명으로 늘었다. 고용률 역시 남성 71.3%, 여성 57.8%로 모두 상승했다. 다만 여성의 고용률 수준은 여전히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실업률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실업률은 3.0%로 상승했지만 여성은 1.8%로 하락했다. 이는 산업별 고용 구조와 구직 시장 진입 방식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북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공공부분 중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농림어업과 일부 전통 산업은 감소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고용 형태의 유연화, 근로시간 감소, 직종별 편차 확대 등은 향후 노동시장 정책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오상근 기자

미래모빌리티 산업 인력양성 본격화

전북중장년내일센터, EV 스마트 안전 중심 실무교육 운영

전북지역 미래모빌리티 산업 성장에 발맞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무형 직무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중장년내일센터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미래모빌리티산업 EV 스마트 안전 전문인력 양성' 2차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전북지역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정책과 전기차·자동차 부품·스마트 제조 분야로의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실무 인력 부족과 구인난 해소, 중장년층의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에 목적이 있다.

교육 과정은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구조 및 핵심 부품 이해 △교전압 시스템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관리 실무 △전기차 충전 기술 이해 △AI 기반 열화상 설비 진단 △생성형 AI 활용 스마트 안전관리 등이다.

또한 전주교육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중장년 고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취업 연계와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 이후에는 취업자 적응 지원과 미취업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도 운영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교육 과정은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구조 및 핵심 부품 이해 △교전압 시스템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관리 실무 △전기차 충전 기술 이해 △AI 기반 열화상 설비 진단 △생성형 AI 활용 스마트 안전관리 등이다. 또한 전주교육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중장년 고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취업 연계와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 이후에는 취업자 적응 지원과 미취업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도 운영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진흥원, '바이오지식포럼(문샷)'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효율화와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9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도내 식품기업과 혁신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과 바이오진흥원이 공동주최·주관했으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정책 흐름에 대응해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생명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식 공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문샷(Moon shot)'은 1969년 미국의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폴로 계획에서



유래한 용어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도전과 연구를 의미한다.

이번 포럼에는 공공 ESG 및 정책평가 분야 전문가인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ESG 연계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강연 이후 전북 생명산업 육성과 공공기관 ESG 경영 점검 가능성, ESG 기반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상근 기자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폭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각을 지원하고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이를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1조 6,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확대에서는 매입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일부 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 대상이었지만, 최근 지침 개정을 통해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 영농 기반이 갖춰진 농지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농지은행 통합포털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법무·노무 분야 '기업 민원 해소의 날' 열려

전주상공회의소, 전문가 1:1 상담 통해 지역 기업 경영 애로 해결 지원

전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법무·노무 분야 전문 상담 행사를 열고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20일 비즈니스라운지에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민원 해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7개 분야 경영지원 전문가 자문단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1:1 상담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월 행사에서는 기업 수요가 높은 법무 및 노무 분야에 집중해 운영됐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와 인사·노무 관리,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이 이뤄지면서 참여 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는 이형구 법무사와 신용순 노무사가 참여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전주상공회의소는 20일 비즈니스라운지에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민원 해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맞춤형 자문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계약, 분쟁, 노무관리 등 실무적 애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김경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

업들이 겪는 경영 애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미래차 산업 전환 대응 '지역 상용차 부품기업 지원'

전북테크노파크가 미래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용차 부품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이 겪는 공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회복 솔루션' 지원 대상 수요기업을 오는 6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추진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상용차 부품 제조 기업

이 친환경차 전환과 미래차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상용차 모기업의 1~3차 협력사 가운데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 분야로 전환하거나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다.

대상 지역은 군산2국가산단, 새만금 국가산단, 군산 친환경자동차용부품 R&D센터,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등 자동차 부품업이 밀집된 산업단지다. /오상근 기자